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인선 마무리...25일 출범

위원장 조만형...1국 2과 5팀 구성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시행

전남도가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등 출범식을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17일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자치경찰제와 관련,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룰 위원장과 위원을 오는 25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장에는 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인선됐다. 위원 2명을 추천하는 도의회 몫으로는 서재수 전 목포시 정보과장(경정)과 감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전남도교육감은 강행욱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남도 자치경찰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유승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과 백혜용 전 장성 서장도 위원으로 내정됐다. 위원장은 정무직 2급 지방공무원, 나머지 위원 중 1명이 말소 사무국장은 정무직 3급이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다.

전남도는 위원 내정에 앞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결격사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여성·인권전문가 1명이며, 전남 출신은 6명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은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도교육감(1명), 전남도자치경찰위 위원추천위(2명), 도지사(1명) 등 5개 기관에 분산됐지만 임명은 모두 전남지사가 한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전남도청에 둔다. 조직 규모는 1국 2과 5팀 규모이다. 사무국에

는 전남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21명을 배치했다. 자치경찰위는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7월 1일 전국 광역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평가,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본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 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및 안전관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친환경 기술 유기농업 실천 '전남도 유기농 명인' 모집

전남도가 독특한 친환경 선도 기술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확산에 앞장선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전남도 유기농 명인' 모집에 나섰다.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농업으로 5년 이상 유기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이다. 분야는 벼를 제외한 과수, 채소, 발효식품, 축산, 기타 등 57개다. 신청은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서 6월 1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을 비롯 독창적 농업 개발, 농작물 개발, 기술보급 실적, 브랜드 개발, 수상 내용, 유기농 인증면적 등을 종합 평가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선정 명인에게는 '유기농 명인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명인이 운영하는 농장에는 안내판을 설치 지원한다. 생산제품에는 전남도에서 개발한 유기농 명인 브랜드 '명인드림'을 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 홍보를 위한 제품전시,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참가, 유기농 명인 교육과정 출강, 해외 우수사례 연수 제공 등 지원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부터 명인을 지정했다. 현재까지 22명이 지정돼 활동 중이다. 유기농 명인은 전남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기술 전수와 책자발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시민 안전 지키는 파수꾼

8년간 4000여건 사건 사고 예방

개소 8주년을 맞은 광주 CCTV통합 관제센터가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제센터는 2013년 5월 14일 광역 단위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관제센터에서는 88명이 5조 3교대로 방범, 어린이 보호, 차량번호 인식용 등 7500여대 CCTV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엔 서구 주택가에 주차된 트럭에 침입한 남성을 발견해 112에 신고, 1시간 만에 경찰이 검거하도록 도왔다. 또 지난 3월 12일 오전에는 도로 세울 간판에 부딪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해 무면허·음주운전 현행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제센터는 그동안 치매 노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 자가격리 이탈자 동선 파악, 자살기도자 구조 지원, 응급환자 신고 등 4173건의 사건 사고 예방, 675건 범인 검거를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향교서 열린 전통 성년례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제49회 성년의 날을 맞아 열린 전통 성년례에서 남자의 관례가 행해지고 있다. /최현재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저압직류 인증지원센터 유치...차세대 '직류산업' 선점

나주 2023년까지 85억 들여 구축

전남도는 17일 차세대 전력시장의 핵심 분야인 직류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가정, 건물 등 전기 사용처에 직류를 공급하는 저압직류 배전시스템과 전력기기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총괄 주관하며, 한국기계전자전기기연구원이 함께해

2023년까지 국비 8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5억원을 들여 나주혁신산단에 센터를 구축한다. 직류는 교류보다 전압을 높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력계통 운용을 교류로 해왔지만 직류 전압을 높이는 특수 반도체를 이용한 전력변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류 송·배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직류로 생산된 전기를 곧바로 직류로 사용하면 전력변환에 따른 손실을 낮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전력 효율을 5%까지 높이면 800MW급 원자력발전소 8기를 줄이는 효과

가 있다. 또한 직류는 교류보다 송전 손실도 적고, 같은 송전선로 면적 대비 2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저압직류 시장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전력기기 개발과 국제표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직류배전 시장은 오는 2027년 484억 달러(한화 약 56조원) 규모로 10년 전인 2018년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직류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국비 250억원 포함 총사업비 353억원을 확보해 '수용가용 저압직류

핵심기기 실증 및 표준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직류 배전시스템에 필요한 변환기, 개폐기, 스위치, 콘덴서, 보호설비, 배전반 등 핵심기기와 이에 대한 국제 표준기술을 개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전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에서 직류기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도록 지원하면, 국내기업의 기술투자와 상용화사업 확대는 물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전원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직류 배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차전지·친환경 선박·e-모빌리티·RE100 산업 및 한국에너지공단 육성 등 전남도 미래 핵심 현안 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강화

전남도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무안 삼함읍의 전남개발빌딩으로 확장 이전해 17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현재 177대)를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15년 9월 개소해 (재)전남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소 당시 상담원 8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상담원 18명과 행정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콜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중무휴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7만5373콜이었던 것이 2020년 62만8464콜로 67%가 늘었다. 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은 콜 접수 및 배차 연결을 담당하는 상담 요원과 이용자등록 및 불만 민원을 응대하는 행정요원 증원을 위해 상담 및 행정 인력의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